01 교회소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
해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이 나타난 만민 하계수련회, 대폭발의 역사로 올해에는 더욱 특별했다.

02 생명의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03 간증
“제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로 축복을 받은 케냐 마가렛 아테카 집사와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박미리 자매 간증.

04 특집
참된 믿음으로 인도받다
해외 30여 개국에서 참석한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의 여름 축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2016 만민 하계수련회’.

만민뉴스

제751호 2016년 8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권능의 대폭발, 2016 만민 하계수련회

해외 30여 개국에서 참석, 기사와 표적 넘쳐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2016 만민 하계수련회’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해외 30여 개국에서 총회장과 주의 종 및 성도 1,2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총 10개 언어로 동시통역되었다.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었으나 수련회장에서는 시종 시원하고 쾌적한 최적의 기온으로 조절되는 기사(奇事)를 체험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해졌다.

▲ 44년 만에 귀가 열려 듣게 된 선천성 농아 팡푸림 성도를 비롯 무수한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고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걷게 되는 등 폭발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넘쳐나는 폭발적 역사로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던 ‘교육’

첫째 날 교육 시, 강사 이재록 목사는 ‘영광’(학 2:9)이라는 제목으로 만민의 34년 동안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학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도 중심의 참된 회개가 이뤄지면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이 헐려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은사집회를 인도하며 각색 질병 치료와 마음의 성결과 변화, 가정·일터·사업터의 축복, 그리고 가정복음화 등 전체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이를 통해 폐암, 후두암, 직장암 등 각종 암을 비롯 당뇨, 담낭염, 충수염, 이경화증, 뇌병변 장애, 편마비, 사지마비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무수한 사람이 실명 및 시각장애를 치료받은 것은 물론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등 ‘눈’에 관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하였으며, 선천성 농아 등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치료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 비밀이 크도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31~32)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신랑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과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님을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한 대로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계속 영을 낳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롬 8:15 ; 갈 4:6).

사람의 마음은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진리만을 가르치시며 진리의 마음을 심어주셨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 생령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죄가 들어와 비진리가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에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입력한 것들이 더해져 형성된 양심이지요. 즉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자기 나름대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 양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심어 주신 진리의 마음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양심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2. 성령이 생명의 씨와 결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과 교통하여 진리를 공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비진리가 들어와 생명의 씨를 점점 감싸게 되니 죽은 것처럼 활동이 위축되었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고 생명의 씨가 비진리에 둘러싸여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활동을 멈추고 다시 살아날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마치 식물의 씨앗이 딱딱하게 죽은 것같이 보여도 생명이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죽은 영이 언제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복음을 들으면 진리의 빛이 마음속에 비추어집니다. 이때 마음에 남아 있는 진리의 마음, 선한 마음이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마음 중심에 있는 생명의 씨와 결합하면 꿈틀거리며 활동을 시작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면 다시 진리의 지식을 공급받아 미움, 교만 등의 비진리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사랑, 화평 등의 진리가 채워집니다.

3.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

이때 필요한 것이 불같은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비진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도록 하는데, 사단은 혼 곧 생각을 통해 마음속의 비진리를 주관합니다. 비진리가 많으면 먼저 생각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받으므로 육체의 소욕을 좇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비록 진리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이론을 안 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좇아 행할 수 없지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곤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고후 10:5).

설령 비진리의 마음을 버렸어도 연단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양심의 악, 다시 말해 깊은 본성 가운데 숨겨진 죄성을 발견하여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심이 다시 자신만의 깊은 본성을 만드는데, 이것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깊은 속마음이지요. 본성 속의 비진리는 하나님의 의와는 맞지 않지만 자신의 보기에 옳고 정당하기에 스스로 발견해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연단 중에 본성 속의 비진리를 발견케 하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자신을 발견해 버리면 본성 속의 비진리도 신속히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남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더딥니다. 하지만 불같은 기도로 본성 속의 비진리도 발견해 버리면 성결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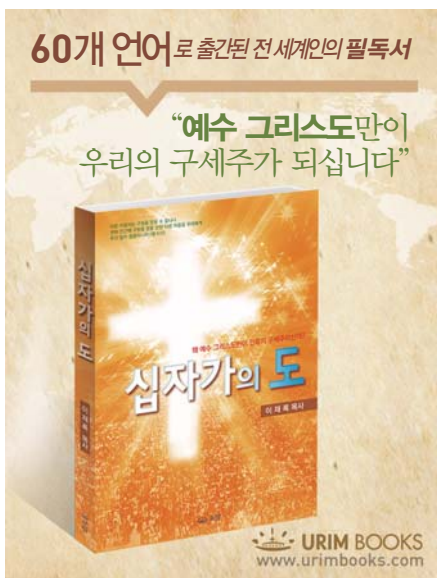
이렇게 성령으로 영을 낳아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자기 의'를 깨뜨려 진리의 마음 자체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믿음의 성장 과정 곧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 구원에 이른 상태를 '자녀들의 믿음'이라 하며, 열심히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믿음', 말씀대로 행하는 '청년의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아비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아비들의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니 담대히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요일 3:21~2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부지런히 성령으로 영을 낳아 신랑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됨으로 이 땅에서는 물론 가장 영화로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가렛 아테카 집사 (46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 남편 사무엘 집사는 남선교회 부회장으로, 마가렛 집사는 여선교회 회장으로 충성하고 있다(왼쪽부터). 사진은 쌍둥이(마가렛 집사 앞) 등 가족과 함께.

저는 오순절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외부에서 모임도 가지며 사람들을 만났지요. 대화 가운데 남을 험담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07년 12월,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가려면 혈기와 미움 등 죄성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깨우치면서 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양봉회사에서 사업개발 매니저로 근무할 때 아주 강하고 무서운 저를 보고 직원들은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제가 변화되어 겸손하고 부드럽게 직원들을 대하니 회사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받아 총괄 매니저로 승진하였지요.

2009년 5월에는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칠삭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몸무게가 1.7 kg과 1.8 kg밖에 안 되어 7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고 이후로도 몸이 종종 아팠습니다. 결국 담임 정명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지요. 목사님은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아이들의 병원비를 감당하다 보니 그만 십일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내 회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십일조를 드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해 나가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건강했고 사업터에도 축복이 넘쳤으며 사고로부터도 지킴을 받았지요.

2015년 1월, 버스를 타려던 저는 불현듯 마켓에서 살 것이 생각나 그 차를 타지 않고 다음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차창 밖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친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가 타려던 앞차였지요.

성결의 복음을 들은 후 제 마음에는 고향(서부 케냐 부테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주버니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조셉 목사님이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정명호 목사님을 초청하여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지요.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만민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이후 계속해서 성결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토피성 피부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박미리 자매 (18세, 고2선교회)

2014년 12월, 엄마와 함께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한 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쯤이야.’ 하며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기 시작한 것이 결국 다시 드라마들을 보게 되었고 세상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니 충만함이 떨어져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졌지요.

2015년 10월경, 귀 뒤쪽이 간지러워서 긁다보니 진물이 나고 목과 턱 부분까지 벌겋게 번졌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었습니다. 세상을 끊고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지요.

기도받기 전, 후의 비교 사진

어느 날 꿈에서 컴퓨터를 켜고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데 까만 형상들이 화면에서 튀어나오고 귀신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컴퓨터를 꺼버리자 장면이 바뀌며 잘생긴 이성이 제 손에 화려한 반지를 쥐어줬고 손가락에 끼는 순간 반짝이던 반지가 까맣게 변하며 제 손까지 까맣게 되었지요. 이 꿈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세상을 끊을 힘을 얻었지만, 아토피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초에는 이마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퍼져 수많은 바늘로 찔러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잠잘 때는 가려움으로 무의식중에 피부를 긁어 자고 일어나면 피딱지가 붙어 있으니 손을 묶고 자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산상기도처에 학생주일학교 학생 전체를 초대해 주셔서 중등부에 이어 고등부가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에도 피부가 찢어질 듯 아프고 너무 간지러워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얗고 보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진물이 흐르는 벌건 얼굴을 한 제 모습이 민망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마구 흘렀지요. 당회장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야지요.”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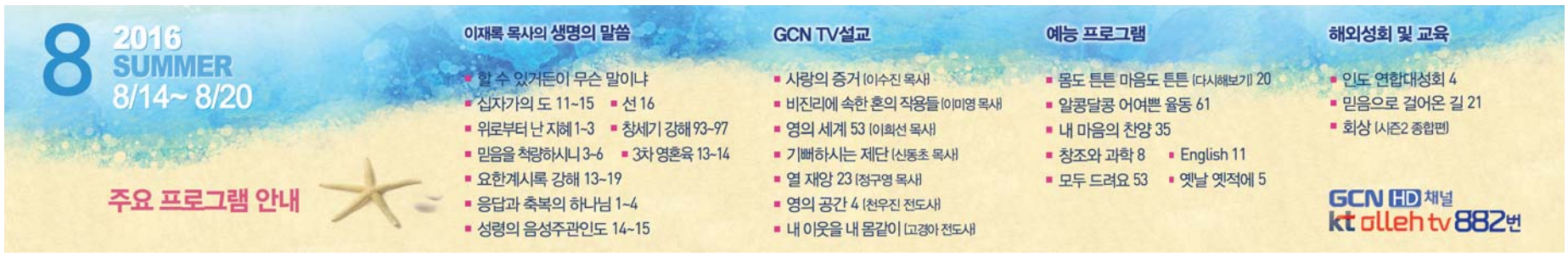
♦♦♦

저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회장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아토피를 빨리 치료받기만 바랐던 제 모습이 깨달아졌고,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나오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제 모습들을 눈물로 회개하였는데 기도 후 얼굴에 통증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저녁 식사 전, 당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근본의 악을 버리면 돼요.”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며 다시 한 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엔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요. 그 뒤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고 가려움이 줄어 밤에도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조금씩 각질이 벗겨져 지금은 깨끗하고 윤기 나는 피부가 되었지요.

더욱이 제가 하나님께 치료받으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신 아빠가 요즘 주일을 지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름과 바람으로 기온을 조절한 최적의 날씨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된 '체육대회'

둘째 날 체육대회는 1, 2, 3대대 교구와 국내외 지교회 총 네 팀으로 나뉘어 주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올해 추가된 남녀배드민턴을 비롯 남녀줄다리기, 남녀애드벌룬 공굴리기, 남녀100m달리기, 남자배구, 남자미니축구, 남녀오래달리기, 남자씨름, 남녀팔씨름, 남녀이어달리기 10개 종목에서 총 21개 금메달을 놓고 승부를 겨뤘다. 그 결과, 올해에는 3대대 교구가 금메달 8개로 첫 우승을 하였으며, 응원상은 1대대 교구, 남자 MVP에는 김대성 집사, 여자 MVP에는 이재아 학생에게 돌아갔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한낮에 치른 행사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시종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최적의 날씨 가운데 진행된 경기를 통해 국내외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다.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올리는 찬양의 향이 축복의 대폭발로 나온 '캠프파이어'

셋째 날 캠프파이어를 인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수련회 기간 동안 시종 구름으로, 바람으로, 비로 기온을 조절해 주시며 기사와 표적으로,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성도들은 인도자와 함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찬양을 부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또한 근본의 우주를 연상케 하는 불꽃쇼를 감상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연회에 초청받은 듯한 황홀감을 느끼며 천국 소망이 더해졌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은 폭발적인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심비에 새길 수 있었다. 폭발적인 영적 성장을 이뤄 본격적인 제3도약기에 영광의 열매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호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